B11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관한 임상적 고찰

성균관의대 소아과 교실
김정심, 박은정, 정소희, 송승미, 정은희, 고시환, 박문수, 진동규

서론 :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서구에서 영아 및 소아의 가장 흔한 급성 신부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비교적 발생 빈도가 적다. 우리 나라에서 보고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원인은 약물이나 원인 미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몇년 동안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출혈성 설사를 동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 본원에서 경험한 이 질환의 임상적인 특성과 경과를 관찰 하였다.
대상 : 1996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삼성 서울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치료한 5례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 1) 발병 당시 연령은 3세 이하가 3례, 9세이상이 2례였다.
2) 계절적 분포는 모든 예에서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였고, 전구 증상이 있기전에 여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례, 오염된 지하수나 약수를 마신 경력이 있는 경우가 4례였다.
3) 임상증상으로는 전신 부종 5례, 핍뇨 4례, 무뇨 2례, 옥안적 혈뇨 1례였다. 소화기계 증상은 출혈성 설사가 전례에서 있었고 1례에서 급성 충수염으로 오인 하여 개복 수술 받았다.
4) 혈액 및 배변 배양 검사에서 동정된 균은 없었다.
5) 무뇨증이 2주일 이상 지속된 2례에서 경피적 신생검이 시행되었으며, 1례는 주로 사구체를 침범한 혈전성 미세 혈관증을 보였고, 1례는 신부전으로 이행된 국소된 신피질 괴사와 사구체 경화가 있는 만성 괴사성 사구체 신증 소견을 보였다.
6) 임상적 예후는 완전 회복된 경우가 4례, 고혈압이 동반된 만성 신부전이 1례였고, 이 1례에서 시행한 복부 단층 촬영상 전형적인 신피질 괴사 소견과 담석이 관찰되었다.
결론 : 유행성이면서 예후가 좋은 전형적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주로 서구에서 많이 보고 되어 왔으나, 최근 몇년 동안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급속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면밀한 임상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12

연령에 따른 소아 급성 신부전의 분류와 치료에 대한 고찰

성균관의대 소아과 교실
박은정, 김정심, 정소희, 김홍근, 이호영, 박문수, 고시환, 강이석, 진동규

서론 : 소아 연령에서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은 발생 연령에 따라 원인 질환이 서로 다르고 투석 치료를 위한 혈관 접근이 어려워, 소아 중환자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급성 신부전의 예후 인자로서는 다발성 기관 부전과 함께 발생 연령이 중요한 예후 결정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1994년 9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내과계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및 외과계 중환자실은 제외) 에서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된 15세 미만의 소아 58례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급성 신부전의 원인 질환과 치료에 대하여 후향적인 방법으로 정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 1) 대상 환아 58례를 연령에 따라 5개군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1개월 미만아가 16례(27.6%)로 가장 많았고 1개월~1세 환아가 15례(25.9%)로서, 1세 미만의 급성 신부전이 전체의 53.5%를 차지하였다.
2) 신성 신부전이 40례(69.0%)로 신전성 신부전(16례, 27.6%), 신후성 신부전(2례, 3.4%)보다 많았다.
3) 원인 질환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아는 심질환(6례, 37.5%), 소화기 질환(5례, 31.3%)이 가장 많았고, 1개월~1세군은 패혈증(7례, 46.7%), 신장 질환(5례, 33.3%)의 순이었다. 1세~15세 연령에서는 신장 질환(43-50%)이 가장 많았고, 패혈증 순이었다.
4) 신장 질환은 10세~15세에서 6례(전신성 홍반성 낭창 3례), 5세~10세군 3례(용혈성 요독 증후군 2례), 1세~5세군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 3례, 1개월~1세군 5례(폐쇄성 신병증 2례) 그리고 1개월 미만아 1례로 연령별로 신장 질환의 양상 및 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5) 41.1%(24/58)에서 신장 대체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혈액 투석 10례는 5세 이상 15세 미만군 8례와 1세미만 환아 2례에서 시행되었다. 복막 투석은 5세 미만 환아 13례에서 시행되었고, 혈액 여과는 1세 미만아 5례와 9세아 1례에서 시행되었으며 사망률은 36.2%(21/58)로서 연령별로 1세 미만아에서 가장 높았으며 (46.7%, 14/31), 10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 (21.4%, 3/14)
결론: 소아의 급성 신부전은 연령에 따라 그 원인 질환이 달랐으며, 신장 질환이 가장 많았고 본 례에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사망률이 연령 및 원인 질환에 따라 차이를 보여 소아 급성 신부전은 연령 및 원인 질환에 따라 예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